

2002년 12월 18일

기자회견문 - 지역주의의 장벽을 허물고 국민통합의 새 시대로 나아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16대 대통령선거의 공식선거운동이 오늘로 끝이 납니다. 저는 지난 20여 일 동안 선거운동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겸허한 자세로 국민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릴 것입니다.

선거운동기간 동안 그토록 바라던 새로운 정치가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이미 시작되었음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돼지 저금통을 들고 나와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자발적인 청중들의 눈에서, 저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강렬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낡은 정치의 청산과 새로운 정치의 시작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국민은 더 이상 정치의 관객이 아니라 주역입니다. 진정한 국민참여 정치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흑색선전과 비방 등 구태정치는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어졌습니다. 돈과

조직을 동원한 낡은 선거 방식도 힘을 잃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정치의 수준을 하루아침에 일류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정치혁명입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반드시 이 정치혁명을 성공시키겠습니다.

우리 정치를 왜곡시켜온 분열의 지역주의를 청산하겠습니다.

제왕적 권위주의정치를 몰아내겠습니다.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주인되는 국민참여의 정치, 모든 지역과 계층이 화합하는 국민통합의 정치,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는 신뢰의 정치, 깨끗하고 돈 안드는 투명한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정치에 입문한 이후 지금까지 14년 동안 동서화합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 왔습니다. 지역주의의 벽을 넘기 위해 정치생명을 던져 왔습니다.

정치를 지역으로 가른 반민주적 3당합당에 반대했습니다. 탄탄대로의 앞날이 보장되던 종로 지역구를 포기하고 다시 부산 선거에 도전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부산에서 세 차례나 낙선하는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통령후보가 되었고, 지금은 서울과 경기, 강원, 호남과 충청, 제주 등 전국 곳곳에서 고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야말로 망국적인 지역갈등을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는 두 번 다시 없을 것입니다. 이제 영남만 도와주시면 제가 전국적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영남은 제가 태어난 곳입니다. 또 대통령후보가 된 오늘의 저를 키워준 곳입니다. 이제 영남이 앞장서서 국민통합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남북이 냉전과 대결의 역사를 청산하고 평화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분수령입니다.

남북의 평화와 협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7천만 민족의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상 경제교류 중단을 주장하는 무책임한 정략은 한반도에 긴장과 냉전을 불러올 뿐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끈기와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를 통해 북한이 핵과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할 것입니다. 경제지원과 교류를 통해 북한이 개혁개방의 길로 나오도록 도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하루만 지나면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땀흘린 만큼 잘 사는 나라입니다. 특권과 반칙이 통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여러분의 투표로 완성됩니다. 부디 투표에 참가하시어
위대한 정치혁명을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12월 18일

새천년민주당 대통령후보 노 무 현